

전국 빈집 한눈에...매매·임대 서비스 개발

국토부·부동산원 '빈집에 누리집' 개편 정보 활용사례 등 지자체 현황도 지도로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12일부터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빈집에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빈집에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자세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인 전남(2만67가구)과 전남 내에서 빈집이 많은 여수(2768가구), 목포(1808가구), 고흥(1311가구) 등이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또 빈집 재정에 대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계획 등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 되



·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활용 사례도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계획 등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 되

도록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매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범부처 빈집TF(행안·국토·농림·해수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에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을 비롯해 행정 통계 정보(사방률, 주택 노후도 등)를 연계 분석,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외부 데이터(생활인프라 정보, 생

활인구 정보 등)와 결합, 빈집 입자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선정돼 다음 달부터 본격 개발에 나선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자체, 민간, 공공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ECONOMY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시제품제작사업 참여 증기 모집 발명진흥회 광주, 내달 11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는 광주 북구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북구에 본사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자체 개발기술(특허 출원 등)의 사업화 또는 공공기관, 기업,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총비용의 80% 이내(최대 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 최소 20% 이상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이 추가 부담할 경우 우대 가점이 부여된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이며 신청은 직접 방문(이노비즈센터 7층)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광주지역 특화분야(첨단반도체융합 기술, 인공지능 융합 기술, 모빌리티 의정전장부품 등) 관련 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리고 북구 '이달의 기업' 선정 기업에는 우대 가점이 주어진다.

박승민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과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 방문 또는 광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https://pms.ripcc.org/www/center/introduce/CNT014/organization.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여수시, 전남신보에 3억원 특별출연

전남신보보조재단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여수시의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여수시는 전남보다 1억원 늘린 3억원을 출연하고, 전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저신용자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심사기준 완화와 보증비율 상향(85%→100%)으로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보증수수

료는 인하(0.8% 고정)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이강근 이사장은 "이번 여수시와 협약을 통해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신보는 올해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한 4500억원으로 목표 늘리는 등 경기침체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퀘어에 호남 첫 매장을 연 글로벌 캠핑 브랜드 디오디는 할인 및 시연품 증정이라는 풍성한 프로모션으로 고객 맞이에 나선다.

광주신세계, 글로벌 캠핑 브랜드 '디오디' 오픈

16일까지 10% 할인행사

광주신세계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글로벌 브랜드 '디오디(DOD)'를 호남 최초로 선보인다. 11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MZ고객들의 쇼핑 성지로 급부상한 플레이 스퀘어에 최근 캠핑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디오디가 오픈했다. 지난 2008년 일본에서 탄생한 디오디

는 'STAY CRAZY'를 슬로건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의 텐트와 수납함 등 여러 캠핑 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캠핑용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볼랙, 카기 등을 이용한 컬러와 브랜드 로고인 토끼 모양을 넣어 디오디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을 보여준다. 디오디는 오는 16일까지 의류 등 주요 상품에 대한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 디오디 모든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양말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경총, 회원사 2배로...“올해 1000개사 목표”

양진석 회장 취임 이후 경영상담 지원 등 혜택 호응

지역 대표 경제단체인 광주경영자총협회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 11일 광주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양진석 광주경총이 취임할 당시 300개였던 회원사가 이날 기준 741개로 크게 늘었다. 이번 추세라면 올해 1000개 회원사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광주경총은 전망하고 있다. 회원사가 크게 늘게 된 데는 광주경총의 다양한 혜택 제공이 배경으로 꼽

힌다. 광주경총은 그동안 회원 기업들에게 경영상담 지원, 노사 관계개선 지원, 인적네트워크 확대, 직무능력개발 지원, 재정 및 인력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이달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회원 기업 돕는 날로 지정해 공모사업 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MZ세대 소통 및 동료 간 갈등 요인 해결 방안, 사내 행사

등 진행 요령,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친절 서비스 및 기업 이미지 관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등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에도 노력 중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포럼 참석으로 회원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회원 기업을 직접 방문해 의견수렴과 애로사항 청취 후 개선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도-코트라, 인도시장 진출 '노크'

전남도는 신흥 시장으로 급부상 중인 인도 뉴델리와 첸나이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현지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트라 광주전남 지원단과 함께 지난 7일까지 인도 뉴델리와 첸나이를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 총 650만달러(5건)의 MOU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산업재 분야 5개 기업과 화장품 분야 1개 기업이 참여했다.

참가 기업은 구매자 발굴 가능성, 수출 준비도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상담회 개최 한 달 전부터 잠재 구매자들과 최소 2회 이상 매칭을 진행하며 수출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박철주 전남도 국제관계대사가 시장개척단과 동행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주요 바이어 및 정부 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참가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전남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유통망,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썼다.



전남도는 코트라 광주전남지원단과 함께 지난 7일까지 5일간 인도 뉴델리와 첸나이에 시장개척단을 파견, 현지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끌어내며 총 650만달러(5건)의 MOU 성과를 거뒀다.

시장개척단 뉴델리·첸나이 파견... 650만달러 MOU 인문 문화교류·네트워크 확대 등 시장 접근력 강화도

상담회에서는 전남지역 중소기업 6개사가 현지 바이어와 총 115건, 2600만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 중 650만달러 상당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했다. 뉴델리 상담회에서는 ㈜경향산업이 단 업체와 보온제 500만달러, 섬섬바이오는

화장품 50만달러 MOU를 성사시켰다. 첸나이상담회에서도 ㈜경향산업이 추가로 100만달러 규모의 단열제·보온제 수출 MOU를 하는 등 참가 기업들이 인도 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동북아 서비스 개시 타이완 선사 'TS Line' 1200TEU급 2척 투입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타이완 선사인 TS Line의 신규 컨테이너 정기선인 동북아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항의 주당 항차수는 81항차로 늘어났다. 동북아 서비스는 1200TEU급 2척이 투입돼 광양-오사카-고베-나고야-요코하마-도쿄-지룽(타이완)-타이중(타이완)-가오슝(타이완)-홍콩-난샤-치안-광양을 하게 된다. 동북아 서비스는 TS Line의 단독 운항

서비스로 광양항 이용률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1개 선사 1개+항로 유치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취임 이후 광양항에 총 27개의 신규 정기선 서비스를 유치했다"며 "앞으로도 항로 유치 캠페인을 추진해 경쟁력 있는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TS Line 서비스로 주당 300TEU, 연간 1만5000TEU의 물동량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한전, 감사원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대상'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성과 발표

한국전력은 최근 감사원이 주최한 2025년도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에서 우수 자체감사 사례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의 성과와 감사활동 노하우 등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도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15개 기관의 감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감사 방향과 자체감사 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한전 감사실은 감사원이 주최한 '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로 최우수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등 4대 감사기관으로부터 모두 대상을 차지하는 골든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한전 감사실은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전기공급 승인을 미리 받은 후 해당

부지를 매매해 최소 3배 이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에 정통지 총 1001건 중 678건(67.7%)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 개발이익 목적의 허수 신청으로 확인됐다. 또한 데이터센터 관련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과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 지정',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클러스터 구축', '부동산 투기제한 조치 병행' 등의 정책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디자인진흥원, 18~20일 '창작의 즐거움' 프로그램 운영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임동디지털창업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창작의 즐거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실용적 창작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의 장비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참가자들이 직접 창작물을 제작하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총 3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18일에는 승화전사기기를 활용한 냉장고 자석 제작, 19일에는 목공 장비를 활용한 스탠체어 제작이 실시된다. 20일에는 3D 프루트 프린터를 활용한 메시지 초콜릿 제작이 펼쳐진다. 참가자는 임동디지털창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 및 시민, 예비 메이커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수강료는 무료다. 재료비는 참가자 본인이 부담한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누구나 창작소의 디지털 장비를 활용,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임동디지털창업소는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라텍스 출력기, 승화전사기 등 25종 69개의 다양한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있다.

디지털 장비 활용 교육과 메이커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설 및 장비 대여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